

전남 동부권

기차마을孝잔치 구경 오세요

“1004종 300만송이 가을 장미와 수 만평에 만개한 코스모스, 추억의 증기 기관차가 어우러진 효의 대잔치.”

‘곡성 심청 효(孝)문화 대축제’가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개최된다. 군은 올해 축제 11년째를 맞아 ‘곡성 심청 축제’에서 ‘심청 효문화 대축제’로 이름을 바꾸었다.

‘효와 함께 열어나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74가지의 다양한 공연과 행사 등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300만송이 장미와 증기기관차=첫째날인 30일에는 효녀심청 건강체조 경연대회와 행복이 팔도 사투리대회, 심청 가족사랑 음악회 등 행사가 열린다.

둘째날 벌어지는 ‘동방신기 비천서커스’와 ‘대한민국 명인·명무전’에서는 70년 전통의 동춘서커스 예술단의 공연과 한국의 소리와 춤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셋째날과 마지막 날에는 ‘심청골 효향잔치’와 ‘심청골 문화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마당이 선보일 예정이다.

‘효와 함께 열어나가는 행복한 세상=효문화 축제의 대표적인 행사는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이다.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는 어린 심청이 가락한 효심으로 남경장사에게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조금씩 성공을 모아 불우노인들의 안

‘곡성 심청 효문화 대축제’ 30일 개막 300만송이 장미·음악회... 볼거리 풍성



과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군은 지난 10년간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행사를 통해 3억8000여만원을 모금, 1300여명의 개안(脚眼)수술을 도와 귀감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농경문화 전시·옛날 농사일 체험과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11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과 전통 향토음식점이 운영된다.

특히 군과 통합체육회는 축제분위기 고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라톤대회(25일)를 포함해 골프, 게이트볼, 야구, 볼링, 정구, 패러글라이딩, 궁도 등 총 8개 종

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허남석 곡성군수는 “이전 ‘심청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관객을 유치하고 농·농 상생(相生)의 장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꾀하겠다”며 “특히 ‘효문화 대축제’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확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군민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 국학연구소는 지난 2000년 송광사 박물관에 소장된 ‘관음사 사적’이라는 고문헌 분석을 토대로 심청이 1700년대 곡성군 오곡면 송정마을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 확인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섬진강 재첩 살포

광양시와 지역 어업인이 지난 26일 다암면 도사리와 고사리 등 섬진강 지선에 재첩을 살포하고 있다. 시는 섬진강 재첩 자원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8t을 지속적으로 살포해 왔다. (광양시 제공)

여수 용기공원 박람회 주차장 무산

추가 사업비 확보 어려워... 생태공원 조성

여수 용기공원에 대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차장 활용계획이 무산됐다.

여수시는 “박람회 주차장 조성 등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용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학동 시청사 뒤편 용기공원의 일야 5만7060㎡를 박람회 대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심 주차장을 확보해 관광객들을 체류케 함으로써 박람회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박람회 이후 도시공원으로 적절하게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지속된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와 실시설계 용역과 정에서 확인된 대규모 암반지대(53%)로 추가 사업비 확보문제 등이 불거져 난항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 직원들에게 아이디어 공모,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 시의회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앞으로 기존 용기공원의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박람회 관람객과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용기공원 특유의 기존 지형의 높이를 차를 이용한 숲속 공연장·시민 잔디광장·숲속 산책로를 최대한 확보해 이와 연계한 무궁화 동산·야생화 단지·전망대·공원주차장 등도 조성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 가자”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보성 차박물관’ 녹차산업 랜드마크로

개관 1년 29만명 찾아 1억5천만원 수익 올려

개관 1주년을 맞은 ‘보성 한국차(茶)박물관’이 녹차산업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했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차박물관 개관 이후 1년동안 29만명이 찾았고 1억5000만원의 순수익도 올렸다. 군은 지난 24일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한국차박물관은 차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 전문 박물관으로서 올바른 차문화 정립과 보급, 다례교육을 통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에 주력했다.

특히 한국차박물관은 인근 보성차밭과 태백산맥 문화관 등과 함께 보성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또 차 박물관 내에 마련된 지역특산품 코너도 꾸준한 인기를 모으며 1억5000여만원의 수익도 거뒀으며 기탁에 따른 전시 유물도 늘어나 볼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다.

보성군 관계자는 “1년의 짧은 기간 한국 차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교육적이고 역동적인 체험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보성 한국차(茶)박물관’이 녹차산업의 랜드마크 자리매김했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차박물관 개관 이후 1년동안 29만명이 찾았고 1억5000만원의 순수익도 올렸다. 군은 지난 24일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한국차박물관은 차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 전문 박물관으로서 올바른 차문화 정립과 보급, 다례교육을 통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에 주력했다. 특히 한국차박물관은 인근 보성차밭과 태백산맥 문화관 등과 함께 보성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또 차 박물관 내에 마련된 지역특산품 코너도 꾸준한 인기를 모으며 1억5000여만원의 수익도 거뒀으며 기탁에 따른 전시 유물도 늘어나 볼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다. 보성군 관계자는 “1년의 짧은 기간 한국 차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교육적이고 역동적인 체험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전북

군산~제주 위그선 연내 취항 어렵다

계류장 공사 지연... 내년 3~4월 취항 가다

군산~제주간 위그(WIG)선(수면 비행 선박)의 연내 취항이 어렵게 됐다.

27일 군산 지방해양안전청과 군산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당초 10월말로 예정됐던 군산~제주간 중형 위그선(50인승)의 연내 취항이 계류장 설치작업이 늦어지면서 항로 시험 운항도 연기되는 등 일정 지연으로 불투명해졌다.

당초 위그선 제조업체인 ‘윙십중공업’과 운영업체인 ‘오션익스프레스’는 10월말까지 계류장 설치와 시험 운항 등을 끝내고 군산 비응항과 제주

에월항 노선에 위그선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윙십중공업과 오션익스프레스는 지난 7일 한국해양연구원에 계류장 설치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이 용역 작업은 2~3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비응항내 월명유류선 옆에 설치할 계류장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양안전청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어 자체 시험운항과 선박등록, 항로 시험운항을 모두 마쳐

야 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기간도 2~3개월에 달해 사실상 내년초로 취항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회사 측도 무리한 일정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내년 3~4월에 취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기에는 촉박한 것 같다”면서 “안전이 제일인 만큼 시험 운항 등을 충분히 한 후에 취항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에 위그선이 취항하면 군산에서 제주까지 1시간50분, 군산에서 중국은 1시간, 일본은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1930년대 시간여행으로 초대

“1930년대 시간여행으로 초대합니다.” 군산지역의 근대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역사 박물관’이 문을 연다.

군산시는 30일 오후 3시 박물관 임시주차장에서 ‘제49회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 개관식을 갖는다.

시는 총 1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원도심 지역인 월명동 지역에 부지 8347㎡·건물 연면적

‘해양물류 역사관’은 ‘국채무역항 군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물류중심지 군산의 역사·문화를 시대별로 소개한다.

‘어린이 체험관’은 놀이형태의 전시물을 통해 서해안의 항구도시인 군산의 해양문화와 산업을 친근하게 소개한다.

‘근대 생활관’은 ‘1930년대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내왕과 부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 30일 개관

10개 전시관 4400여점 유물 전시

4248㎡,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근대역사 박물관을 건립했다.

전시관은 ▲해양물류 역사관(509㎡) ▲어린이 체험관(126㎡) ▲근대 생활관(617㎡) ▲기획 전시실(231㎡) 등으로 구성됐다. 보유유물은 4400점으로 이 가운데 2250여점은 각계각층의 시민과 단체들이 기증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개관식에 맞춰 상설 전시장 4개소, 특별 전시장 6개소 등 총 10개의 전시관에서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진 테마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11채를 복원해 당시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근대역사 박물관은 4개국어(한·영·중·일) 음성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홈페이지(museum.gunsan.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홈페이지(mum.gunsan.go.kr)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준기 근대역사박물관장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고창향교 기로연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래환 군의회 부의장, 고창향교 이정범 전교, 유림회원들이 최근 100세를 맞은 김이남 할머니를 기로연(耆老宴) 행사장으로 안내하고 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기로소에 등록된 70세 이상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고 공경하기 위해 조정에서 베풀던 행사이다. /전북취재본부=음창영기자 young@

단신

전북도 소방공무원 120명 선발

전북도는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3교대 근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120명(남자 105·여자 15명)을 채용한다. 선발인원은 ▲화재진압 분야 70명 ▲구조·구급 48명 ▲전산 2명 등이다. 원서는 2012년 1월16~18일 인터넷 접수사이트(local.gosi.go.kr)를 통해 받으며 필기(3월), 실기(4월), 면접(5월)을 거쳐 6월 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험과목중 행정학개론이 행정법론으로 변경되고 전형은 필기(65%)·실기(25%)·면접(10%)시험으로 다원화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지난 27일 부안 대평리조트에서 열린 ‘2011년 하반기 물종합기술 연찬회’에서 물관리(상·하수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노후관 교체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한 우수을 제고사업 추진을 비롯해 ▲수돗물 수질검사 시민참여로 공개

행정 구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시, 수해 주민 지방세 감면

정읍시가 지난 8월 6~10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감면되는 지방세는 모두 2억 5661만원으로 ▲재산세 토지부담 2억4515만원(1만1752명) ▲주민세 880만원(4085가구) ▲재산세 주택부담 266만원(121가

구)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등의 사유로 감면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 특례제항에 따른 것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의회 “전라선 KTX 분산정차 안돼”

남원시의회는 지난 26일 한국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의 남원역 전라선 KTX 분산 정차 결정에 대해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라선 KTX 정차노선은 당초 익산~전주~남원~순

천~여수로 지정되었는데 남원에서 불과 10여 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인접지역(곡성 10분·구례 20분)에 분산 정차토록 계획을 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근기자 bs8787@